

세기를 연결하는 다리, 라데팡스 옛것과 새것의 조화

중세부터 내려온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중심지 오피스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라데팡스(La Defense). 고풍스런 파리 도시 이미지에 반(反)하는 최첨단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라데팡스의 개발 과정을 통해 미래 복합 개발의 이정표를 그려보게 된다.

글·사진 | 윤한상 저스트알 기획관리실 과장



샤를 드 골 공항에서 파리 시내 5구 소르본 대학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가는 길이 심한 교통 정체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서울과 같다. 그리고 패션과 예술의 도시 파리의 시민들은 정작 옷맵시가 뛰어나 보이진 않는다. 대학 근처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주로 다녀서 그런지, 대부분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다. 하지만 이 멋없는 파리지앵(Parisian)들이 걷고, 웃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거리의 전경은 하나의 화려한 무대 같다. 도시 전체는 고풍스런 역사·문화 유적으로 세팅된 듯하면서도 최신의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대대적인 도시 개조에 이은 또 다른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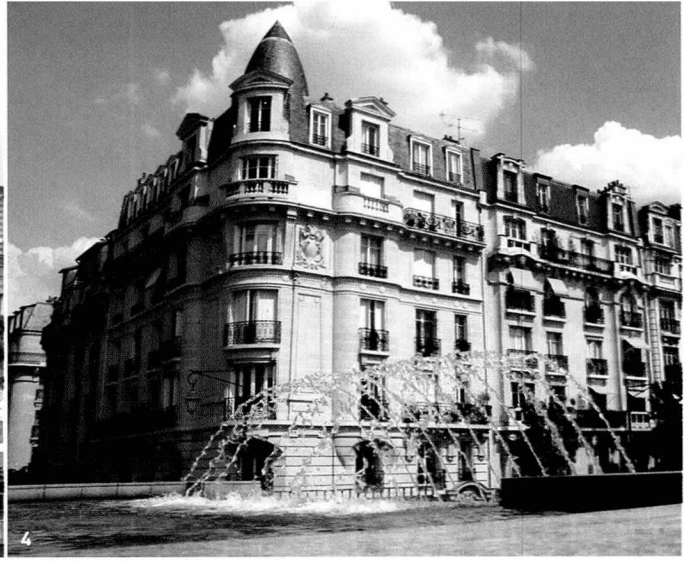
사람들은 샹젤리제 대로(Avenue des Champs Elysees)처럼 쪽뻗은 도로와 널찍한 광장의 파리 모습에 익숙하다. 이는 19세기, 오스만(Georges-Eugene Haussmann)이 대대적인 도시 구조의 개조를 단행한 이후 파리의 시가지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직선 광로와 원형 광장, 격자형과 방사형을 조합시킨 도로망의 특징을 지닌 바로크식 도시 계획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1958년, 파리는 또 한 번의 대변신을 시도하고자 했다. EPAD(Etablissement Public pour l'Amenagement de la region de la Defense, 라데팡스 지역 개발본부)를 설립한 것이다. 이 기관을 통해 파리의 서쪽 끝 약 750만㎡(A지구 약 161만㎡, B지구 약 588만㎡) 부지에 업무 기능 중심의 신도시가 반세기에 걸쳐 개발됐으며, 2000년에 이곳을 '라데팡스 지구(Quartier de la Defense)'라 명명했다.

라데팡스 개발은 당시 파리의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해지는 데 대응해, 도심 내 고밀 개발 대신 수많은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으로 계획됐다.

전통을 벗어던진 새로운 시도

라데팡스는 당시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지만, 이미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추진된 사업이다. Esso Tower, CNIT(우리나라의 KOEX와 같은 컨벤션 센터), Nobel Tower 등 1기 건축물들은 모두 100m 이하의 높이 규제를 받고 서로 비슷한 외관을 지녀 별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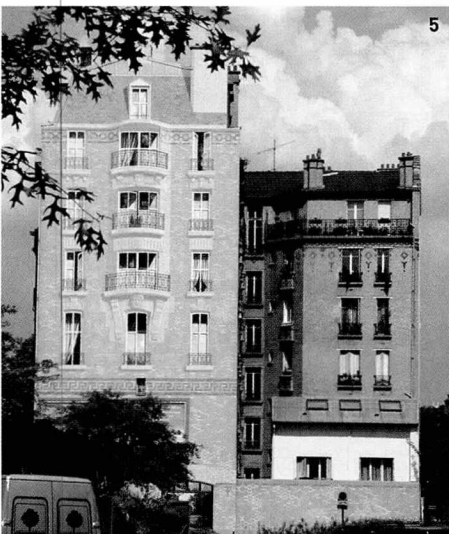
특색이 없었다. 하지만 1970년대 프랑스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제2세대가 지나가고, 80년대에 들어서자 라데팡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파리의 3개 개선문 중 하나인 ‘그랑드아르시(Grande Arche)’다. 이 37층 규모의 대형 구조물 가운데 뚫린 커다란 공간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창과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파리에 이처럼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건축물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부터 EPAD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찾기 위한 국제 공모를 시작했고, Esso Tower 등 지구 내의 기존 건축물들을 재건축했으며, 지하철 1호선 역을 연계한 교통 체계와 지하 공간 정비 등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전통적 파리 시가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도시가 태어났다. 현재 1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라데팡스 지구 내의 오피스 연면적은 약 350만㎡로 여의도 63빌딩 21개 규모다. 여기에는 1500개의 기업이 입주해 15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600여 개의 호텔 객실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중앙에는 여의도 공원의 약 2배 규모인 약 41만㎡의 넓은 공원과 보행자 도로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6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설치 미술 혹은 조형 예술 작품들로 채워놓았다. 건물에서부터 조각 하나까지 전통적인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개성이 넘치는 것들뿐이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관문

원래 수도 파리의 업무 기능과 배후 주거 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라데팡스는 그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그곳에는 30여 년이 지난 건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세련된 건물들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197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맥을 이어 완공된 맨해튼(Manhattan, 이 건물로 인해 라데팡스는 프랑스의 맨해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강(Gan), 아레바(Areva), 악사(AXA) 등의 건물은 여전히 라데팡스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라데팡스의 건물은 계속 진화한다. 자산 규모 9500억 유로(약 1235조 원)의 세계 최대 보험 회사 악사(AXA)가 입주하고 있는 투르 악사(Tour AXA)는 대규모 리모델링을 인가받은 상태다.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외관의 전면 교체와 함께 현재 39층(159m)에서 61층(227m)까지 증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높이 318m의 투르 제네랄리(Tour Generali), 300m의 투르 파르(Tour Phare) 등의 초고층 오피스 건물이 곧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와 미래에 충실한 라데팡스. 나폴레옹의 에토알 개선문(Arc de Triomphe de letoile)에 올라서서 ‘역사적 중심축(Great Axis)’을 따라 석양에 물든 라데팡스를 바라보면, 그랑드아르시 미래의 창(窓)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파리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㉞



- 1 라데팡스 4구역에 위치한 커르 데팡스(Coeur Defense). 건축가 J.P.VIGUIER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2001년 완공되었다.
- 2 샤를 드 골 대로에서 바라본 라데팡스 전경. 지하철도도 차량 통행을 분리해 라데팡스의 광장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구조로 되어 있다.
- 3 라데팡스 주거 지역 내의 한 아파트. 옥상 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박공 구조(Gable)로 설계되었다.
- 4 샤를 드 골 대로 중간에 위치한 분수대와 전형적인 파리 주택의 모습. 시멘트로 마감된 외벽에 창문을 그려 넣어 언뜻 보면 옆집의 실제 창문과 구별이 어렵다. 비록 옆면이지만 돈을 들여 꾸미는 프랑스인들의 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도심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 5 샤페리 도심의 한 주택.
- 6 프랑스 전력청 EDF(Electricite de France) 건물. 연면적 6만4300㎡에 40층 규모로 2001년 완공되었다.